

「서원학원 정상화」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님께

평소 교육정책을 비롯한 국정운영에 온갖 노력을 기울여 주심에 대하여 우리 150만 충청도민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앞에 펼쳐진 21세기에는 교육 문제가 그 어떤 분야보다 중요하고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체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환경은 당대의 번영은 물론 후대의 향학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은 충북 교육문화의 요람인 충청북도 청주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는 서원학원이 일련의 학내 분규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중부권의 명문사학이며 우수한 인재배출의 요람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국정의 핵심에서 계시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님께서 애써 주시리라 믿으면서 현재 충북 서원학원이 겪고 있는 학내

분규와 관련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법인인 서원학원은 서원대학교를 비롯한 산하 5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며 지역 교육사업에 크게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원대학교는 개교 이래 40여년 간 3,000여명의 교원을 배출 하였으며 지금도 연간 100여명의 교원을 배출하는 교원 양성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명문사학 법인인 서원학원이 지난 1992년 이사장이 거액의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피이후 촉발된 서원학원 학내 분규가 내우외환을 겪으며 16년째 표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서원학원 산하 5개 중.고등학교 총 동문회를 중심으로 학원 정상화 촉구 성명서 발표, 학원 장기발전 청사진 요구 등 연이은 학내 분규로 인해 지역화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서원학원이 학원 정상화를 통해 명실상부 지역교육의 요람으로 거듭 태어날 것을 기원하며 다음 사항을 간곡히 건의 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북지역 인재양성의 산실인 서원학원이 학원 분규로 인해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불신의 골이 깊어져 지역 화합의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는바, 지역안정과 화합을 위해 서원학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도록 적극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충청북도가 도정 제1의 목표로 추진하는 교육강도 실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분규의 장기화로 인해 충청북도의 교육목표인 인재양성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결과적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 및 도민들에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바, 조속히 학원이 정상화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21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